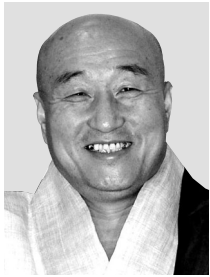


# 자비 광명으로 못 생명을 구하소서

## 부처님 사랑하듯 중생 사랑해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사부대중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비로 우신 분, 깨달으신 분,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부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셨던 인간적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부처님은 결코 편하게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열반의 즐거움보다 중생의 고통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요즘 가슴 아픈 소식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생 지니신 분이셨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대하여 봅시다. 저희 불자들은 성불하는 그 날까지 부처님 품에서 당신을 사랑하듯 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정  
운봉 스님



부처님 오신날, 우주법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 조사님들과 함께 중생들이 환희에 젖어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 수행하며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밝고, 맑고, 희망찬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는 체가 없어 무한정 크게 생각하면 그대로 커짐이요, 작게 생각하면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답게 자비로운 대자대비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사람들이 모두 돌이 아님을 알고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한다면 평화로운 지구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되새기며 타인의 고통을 곧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픔을 나누는 적극적인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 일체중생의 자성이 본래 부처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사바세계가 두루 녹색이요, 만천하가 오색의 꽃으로 장엄한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오셔서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 거룩하신 부처님이 오신 것을 모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의 자성(自性)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므로 일체의 중생은 모두 평등하고, 참된 자성은 불생 불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참된 자성을 깨우쳐 성불할 것을 다짐하여 정진합시다. 그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선법(善法)을 닦아 지은 업(業)을 맑히고 대찰대묘의 경계를 증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는 세월호의 사고로 비통에 젖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위로 드리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 삼세인과법 깨달아야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마음의 등불을 켜서 항상심을 가지고 수행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보이는 현상계 물질계 집착하고 욕망을 키워 만족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통 아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법의 삼세인과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새겨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나십시오. 또한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소외되고 억압 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보며, 황폐하고 삭막해지는 이사회를 구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 은혜 아는 것이 참사랑 참불자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나는 그 첫 번째로 은혜를 알고 살자, 고마움을 느끼며 살자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노사관계, 이웃관계 등 당연히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할 관계인데도 원만한 인간관계조차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느끼면 참사랑이 되지만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면 참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옛날에 부모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가 사랑하고, 부부·노사·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고마움을 담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108주년 동국가족 일심 서원

김희욱 동국대 총장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산천초목은 더 없이 싱그럽고 봄에 감기는 바람은 선선하고 부드럽습니다. 천지만물 모두가 자연의 성품을 따라 움직이니 저절로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면면불조께서는 이런 기쁨의 경지를 두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요 세세생생 처처불상이라 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부처요, 바늘 구멍 만큼의 작은 틈도 없이 전 우주에 불성이 꽂혀져 있으니 우리 모두가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참 좋은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라만상 역조창생이 부처임을 스스로 깨달아 행복하고 평등하니, 모두가 부처임을 알고 때사를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이렇게 참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미래의 인류와 세계민방에 더욱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국가족이 일심으로 서원하노니 제불보살님을 가피하여 주옵소서.

##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정병조 금강대 총장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계의 생생 방향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설화했습니다.

나와 남이 하나되는 세상은 우리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또 유효대사가 가르쳤던 화평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성불을 이루는 것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불자들의 원력을 실현할 도량이 상존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유연무연(有緣無緣)의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자비안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도록 기원합니다.

##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일 년 중 가장 만물이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온 세상이 연등 빛으로 환히 빛나고 너도나도 모두가 행복해야 할 좋은 날에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먹먹할 뿐입니다.

2500여년 전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깨달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우리 사회가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는 오늘 날, 부처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중생과 세간을 연민히 여기는 자비를 통해, 사회 정의의 실현과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환한 세상을 위한 등불켜야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온 나라 온 국민의 근심 속에 여객선 세월호는 침몰하고 우리 급죽같은 어린 자식들, 마지막까지 제자를 지킨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빌고 상제받은 유가족의 조속한 심신 치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이런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크게 재고 하고, 향상의 길을 모색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쌓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경계 하였고,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정진, 바른 마음, 바른 선정을 행하는 것은 탐진치의 독소를 제거하는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자칫 일상에서 별것이나다라고 홀려버리기 쉬운 요소입니다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김없이 울곧게 나를 밝히고, 환한 세계를 이루는 등불을 켜주세요. 부처님오신날에 부처님을 닮고자 원을 세워봅시다

## 국민을 부처님 같이 모실 것

김상인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신록이 대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봄바다 동산에 무우수꽃이 만발한 때,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시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을 벗어나 불성을 깨우치게 하시교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자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불자연합회 불자들은, 공직자로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뼈아프게 자성합니다.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모든 희생자의 영전에 삼가 참회와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우리 공무원 불자들은 다시 한번 '국민을 부처님같이' 모시겠다는 초심을 되새겨 보고 맑은 바소임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 세상을 항기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참회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권영구 국제포교사회장



오늘은 이 땅에 축복이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2500여년 전 삼계의 드높은 스승이시고 일체중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부처님께서 무엇이 이 세상의 실상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오신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이 아침 우리는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려 참회의 시간부터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귀한 날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시발점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이나마 그 역력한 영령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충만한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바라며 날마다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가운데, 평화와 행복이 물결치는 불국토를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타인 고통 내 고통으로 여깁시다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고통 받는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무명에 가린 중생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열어 주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과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봄되고 기쁜 사월초파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어른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가운데 정명(定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생명을 구하시고 극락왕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들도 어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 동체대비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곽명희 포교사단 사단장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승선한 운명공동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사랑합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 땅은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3백 여명이고 그 중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에 기성세대들은 슬픔과 함께 크나큰 자책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내 아이요 딸인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영원히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천5백년 전 각각의 개인이 모두 존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天上天下唯我獨尊) 또한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모두를 평안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三界皆苦我當安)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오늘도 포교사들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로 유명을 달리신 분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대학생 불자 지원에 역량 모으자

백효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통합총동문회장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침투함과 참담함을 안고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활짝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어린 생명들의 무수한 희생은 슬픔을 넘어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아픔 가슴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참다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올해에 우리 곁에 오시는 부처님은 너른 대지의 품처럼 이번 참사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이들의 아픔을 감싸줄 자애로운 빛으로 나무소서, 아픔을 던지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빛으로 나무소서, 국민들의 명든 가슴을 치우시고 슬픔을 달래줄 희망의 빛으로 나무소서. 대불련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 진정한 불자로 회향하길

신경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여느 때 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5월 6일은 2558번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1년에 한번 뿐인 날을 맞이해 환한 연등을 밝히고, 장엄한 행렬을 하며 기쁘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즐비해 너도나도 웃음꽃이 가득했던 지난 부처님 오신 날들이 떠오릅니다.

올해 역시도 나무에서 꽃이 피면 사람들은 외투를 벗고 얼어 있던 땅은 기지개를 펴며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번 봄만큼은 그 따뜻한 봄이 온데가 없었습니다. 진정하고 공평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기쁜 날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우리 불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엄숙히 바라보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스스로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불자의 모습으로 회향할 수 있기를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서원합니다.

## 시대정신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수덕 참어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불법을 수호하여 시대정신의 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삼계를 이끌어 주시고 못 중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여 스스로 자초한 세월호 참사를 깊이 참회하며, 희생된 고귀한 영가들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없이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호하고 홍보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안고 남 탓만 하며 구업을 짓는 일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자타불위의 진리를 체증하여 이 세상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 위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가 거듭나서 시대정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